

초등생 욕설, 친구·인터넷서 처음 접해

어린 초등학생들은 어디서 처음 욕설과 비속어를 접하게 되는 걸까. 언제부터 욕설을 사용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충고해주는 사람은 주로 누구일까.

학부모와 교육계의 공통고민 중 하나인 '어린이 욕설'. 아이들은 주로 친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곱지 않은 언어'를 처음 접하고, 대부분은 초등생 때 욕설 등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한 설문 결과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뢰로 동신대 신화학력단 노병호 교수팀이 광주지역 5개구별 초·중·고교씩, 모두 5개 학교 5~6학년생 202명으로 대상으로 지난해 10월4일부터 12월28일까지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에서 자주 듣고 스스로 사용하는 욕설은 대략 30가지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씨' '병' '개' 'X' 등의 직설적 욕설은 물론 '패드립(패륜적 드립)', '짤(어수룩하거나 지질한 친구)'와 같은 신조어나 영어 욕설도 포함됐다.

이같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접한 경로로는 39.4%가 '친구'를 첫 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인터넷'(26.8%), '영화'(9.9%), '형제나 자매'(7.5%), '웹툰'(5.2%) 순으로 나타났다.

욕설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초등고학년(4~6학년)이 75.7%로 가장 많았고, 초등저학년(1~3학년)도 21.8%에 됐다. 심지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시절에 처음 사용한 학생도 2.5%에 달했다.

욕설 대상은 '친구'가 74.8%, '형제나 자매'가 12.8%, '후배'가 6.6%에 달했고, 일부 학생들은 선배나 어른 심지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사용한다고 답했다. 1.8%는 '아무한테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을 사용할 때 충고한 사람이 있는지는 질문에 39.4%만 '그렇다'고 답했고, 충고자로는 '친구'(30%), '부모'(25.6%), '선생님'(2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말투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보통'이 30.7%로 가장 많았고, 19.8%는 '많이' 또는 '아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선생님 말투의 영향에 대해선 '보통'이 24.8%, '전혀 받지 않는다'가 40.6%로 조사됐다.

공격적 언어사용 빈도는 39.2%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24.5%는 '많이' 또는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용하는 공격적 언어로는 '뒤에서 헐담하기'가 35.6%로 가장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정책연구용역 결과

10명 중 8명 "초등학생 때 처음 욕설 사용"

공격적 언어, '뒤에서 헐담하기' 35.6% 최다

충고자 친구-부모-선생님 순, 20% "부모 영향"

많았고,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18.3%), '협박하는 말'(17.3%),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14.4%)이 뒤를 이었다.

공격적 언어사용 이유로는 '남들

이 사용하니까'(25.4%), '습관이 돼서'(21.3%),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12.1%)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언어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더불어

법률과 제도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육청 주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언어순화에 관한 대화나 콘테스트를 열어 시상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말 교육원 설립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북적거리는 추억의 문구사 전남 천안의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은 10일 오전 팝업 전용공간인 '아우리스케이'에 추억이 가득한 인생문방구를 주제로 천안 남산초등학교 앞 추억의 문구사를 개소했다.

교육부, 폭력·성폭행 운동부 감독·코치 징계 절차 개선

소프트웨어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가운데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 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절차를 체계화하는 내부 지침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주 중에는 대한체육회와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 중인 개선안은 성 비위나 폭력을 저지른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학생부지도자 자격 제한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 가 개입해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시·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에 해당 지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

하면 대한체육회는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해당 지도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다시 개별 경기단체의 징계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시·도 교육청이 직접 개별 경기단체 지도자에게 징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강제성이 크지 않아 경기단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슬렁방이 징계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학교장이 가해자인 지도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다 른 시·도 학교에서 재취업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도 학생 지도자 명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학교가 지도자와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혹행위 등 관련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가 아닌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에도 지도자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성 비위나 폭력, 갑질을 일삼은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학기 적용이 가능한 징계절차를 이력"면서 "우선 절차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영구제명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스

광주서 승용차·시내버스 추돌...1명 부상

10일 오전 8시8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48)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B(64)씨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여파로 출근시간대 주변 교통이 1시간 가량 정체됐다.

시내버스에는 승객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졸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훙친 차로 접촉사고넌 뒤 줄행랑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훙친 외제차를 몰고 차 달이를 반복한 혐의(절도)로 서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BMW 차량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보조키로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날 7일 사이 다른 차량 4대에서 카드, 통장, 차키 등을 훙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혐의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일 출소한 서씨는 생활비와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 7일 훙친 BMW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으며, 경찰에 신고되자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서씨를 붙잡았다.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 욕설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에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를 지나던 지구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 동안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 잡지키 태워달라고 요구하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귀갓길에 순찰차를 택시로 오해한 것 같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집 텀 상습 절도범' 30대 아들이 붙잡아

3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집을 텀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훙친 혐의(절도)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B(71·여)씨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2만원을 훙치는 등 전후 총 8차례에 걸쳐 자전거, 화장품 등을 훙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문 단속이 허술한 집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출소 뒤 지병으로 인해 일지리를 구할수 없게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들(30)에게 알려졌다.

이들은 수상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붙잡았다. 이어 A씨가 훙친 어머니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해 사진을 찍어둔 뒤 돌려보냈다.

아들은 A씨의 행색이 초라해 어머니 휴대전화만 되찾으면 신고할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들은 곧바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경찰에 넘긴 뒤 신고했다.

경찰은 아들이 전송한 사진을 토대로 탐문을 벌여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출소 뒤 특별한 주거없이 생활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형택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